추신수 ML 8개 구단 러브콜 거절 “한국에서 뛰는 꿈 항상 간직했죠”

메이저리그 구단에 기량 인정 받았다 평가 … 한국행 결심 계기
개인 훈련 꾸준히 해 컨디션 최상…SNS에 “최선 다하겠다” 소회

추신수(39)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8개 팀의 러브콜을 뿌리치고 KBO리그 신세계그룹 이마트 구단을 택했다.

추신수 측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입단 제의를 해온 팀은 총 8개”라며 “추신수는 가족들과 많은 고민 끝에 한국 팬 앞에서 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신수에게 러브콜을 보낸 8개 팀 중 두 팀은 올해 포스트시즌 출전 가능성이 높은 팀이다. 상당히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팀도 있다.

관계자는 “큰 액수를 제안한 팀은 포스트시즌 진출 가능성이 낮은 팀이었다”며 “모든 희망 조건을 충족한 팀이 없는 상황에서 신세계그룹이 영입 의사를 밝혔고, 22일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재밌게도, 추신수가 KBO리그행 결정을 한 건 MLB 구단들의 러브콜 때문이었다.

관계자는 “추신수는 지난 시즌을 마치고 MLB 구단의 적절한 영입 제안이 없다면 은퇴하려고 했다”며 “구단들이 영입 대상에서 제외할 만큼 기량이 떨어졌다고 평가받는다면, 선수 생활을 이어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신수는 비교적 좋은 기량을 한국 팬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MLB 구단들이 러브콜을 보낼 만큼 건재하다고 느꼈기에 한국행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몸 상태는 나쁘지 않다. 관계자는 “추신수의 컨디션은 예년 이맘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시즌이 끝난 뒤 계속 개인 훈련을 소화했고, 새 시즌 무리 없이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신수는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각오를 담은 장문의 글을 올렸다.

추신수는 “20년 전, 나는 빅리거가 되겠다는 인생의 꿈을 안고 미국에 온 작은 소년이었고, 빅리그에서 뛸 한 번의 기회를 갈망했다”며 “내 꿈은 현실로 이뤄졌고, 메이저리그에서 16년을 뛰었다”고 적었다.

이어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야구를 시작했으며 언젠가는 한국에서 뛰고 싶다는 꿈을 늘 마음에 간직해왔다”며 “이제 행동으로 옮겨 인생의 새 챕터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한국행 결심을 알렸다.

추신수는 마지막으로 “나를 믿어준 팀, 내 활약을 보려고 기다려 준 팬들과 내게 큰 희망을 보내준 이들, 야구 선수로서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희생해 준 가족, 30년 야구 인생, 그리고 내 심장을 위해 뛰겠다”고 다짐했다. 또 “얼마나 잘할지는 약속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만큼은 약속한다”며 “2021년 모든 이에게 행운이 깃들고, 건강하게 지내기를 기원한다. 조만간 봅시다”란 말로 글을 맺었다.

/연합뉴스

윌리엄스 감독 “KIA 마운드, 성적·육성 두토끼 잡는다”

KIA 타이거즈의 외국인 투수 멩덴과 브룩스(오른쪽)가 윌리엄스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23일 챔피언스필드에서 불펜 피칭을 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선발 뒤 선발자원 붙여 긴 이닝 소화 ‘더블 스쿼드’ 전략…불펜부담도 줄여
김유신·이의리·김현수 등 5명 선발 후보…강철민 코치, 2군서 진주 찾기

KIA 타이거즈가 ‘더블 스쿼드’로 마운드 성적과 육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KIA에서 두 번째 시즌을 앞둔 윌리엄스 감독은 세밀하고 또 긴 호흡으로 마운드 지도를 그리고 있다.

공식적인 선수단 휴식일이었던 지난 22일에도 그는 챔피언스필드에 나왔다. 휴식일에 불펜피칭을 하는 투수들을 지켜보기 위해 오전 일찍 경기장을 찾은 윌리엄스 감독은 해가 진 뒤 경기장을 떠났다.

그는 “오전 7시 45분에 경기장에 도착했는데 12시간 뒤에 퇴근했다(웃음)”며 “불펜 피칭도 있었지만, 캠프 남은 기간 피칭 스케줄을 짜느라 오래 있었다”고 말했다.

KIA는 휴식일에 맞춰 2군 투수들도 챔피언스필드에서 불펜 피칭을 하고 있다. 윌리엄스 감독이 직접 다양한 선수를 지켜보고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방안이다.

22일 윌리엄스 감독이 눈 여겨 본 자원은 광주에서 선발 수업 중인 김유신과 함평에서 준비하고 있는 차명진 등 ‘미래 자원’들이었다.

윌리엄스 감독은 “김유신을 봤는데 컨트롤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괜찮았다”며 “인원이 많고 동시에 불펜 피칭이 진행돼 모든 선수를 보지 못했지만, 차명진도 봤다. 살도 빠졌고 주어진 프로그램 잘 소화해주고 있고, 불펜피칭하고 나서도 문제가 없었다. 좋아 보였다. 비상시 대체 선발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시즌 시작은 함평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양현종이 빠진 마운드에 브룩스와 멩덴을 두 축으로 해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있다. 목표는 ‘꾸준함’이다.

지난해 KIA는 전반기에 마운드에서 좋은 지표들을 작성했었다. 하지만 브룩스가 이탈한 후반기에는 마운드가 흔들리면서 결국 5강 티켓을 놓쳤다.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변수 많은 그라운드, 윌리엄스 감독은 ‘더블 스쿼드’를 한 방안으로 꼽고 있다.

그는 “시즌 들어가면 선발에 선발 자원을 붙여서 경기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로 브룩스 다음에 김현수가 될 수 있고, 임기영 다음에 루키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선발자원들로 이닝을 길게 끌어가면서 성적을 내고, 신구 조화로 육성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윌리엄스 감독은 “브룩스와 김현수는 소통도 잘하고 있고 두 사람 조합으로 많이 붙여서 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 경기 들어가면서 일어났던 것들 이야기할 수 있고, 경기 외적인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김유신과 좌완 루키(이의리, 장민기) 세 명은 다른 선발조에 붙여서 시스템을 준비하려고 한다. 모든 선수가 동시에 준비되고, 언제든 선발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김유신, 이의리, 장민기 세 좌완 투수와 김현수, 장현식이 선발 후보로 꼽힌다. 차명진도 선발군으로 분류된다.

1·2군을 동시에 준비하고 또 1군에서도 ‘더블 스쿼드’를 가동하면서 꾸준함을 이어가겠다는 계산.

윌리엄스 감독은 “길게 보고 있다는 게 맞는 것 같다. 지난 시즌 전반기에는 피칭 부문에서 상위권에 있었다. 후반기에도 유지하길 바라면서 차근차근하고 있다”며 “엄마가 해주셨던 말 중에 케이크를 만들 때 반죽하고 버터를 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레시피가 있는 이유가 있다. 보통 레시피를 따라가지만 모든 엄마는 다르게 맛을 낸다. 결국 맛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시즌을 케이크로 본다면 원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된다”고 말했다.

브룩스·멩덴이라는 기본 반죽에 임기영·이민우를 더해 새로운 재료를 섞어 맛있는 시즌을 만들기 위한 윌리엄스 감독만의 ‘특별 레시피’다.

한편 서재응 코치와 함께 강철민 코치가 새로 2군에 합류해 마운드 다지기에 나서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윌리엄스 감독

“추신수, KIA에 부담”

윌리엄스 감독 “ML 시절 기피”
멩덴 “좋은 선수…맞대결 기대”

KIA 타이거즈의 윌리엄스 감독이 “싫어하는 선수였다. 우리에게 부담을 줄 선수가 한 명 늘었다”며 추신수와의 재회 소감을 밝혔다.

‘추추 트레인’ 추신수의 KBO 합류 소식은 23일 챔피언스필드에서도 화제가 됐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아시아 선수 개인 통산 최다 홈런 기록을 쓴 추신수는 SK 와이번스를 인수한 신세계와 연봉 27억원에 입단 계약을 맺고, KBO리그에서 야구 인생 마지막 불꽃을 태우게 됐다.

추신수의 신세계 합류 소식을 들은 윌리엄스 감독은 “오클랜드에 있을 때 보기 싫은 타자였다. 그런데 그가 여기에 온다고 한다(웃음)”며 “환상적인 선수로 기억하고 있다. 모든 면에서 뛰어났다. 파워도 가지고 있고, 수비도 좋았다. 지금은 나이가 있는 선수지만 좋은 선수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싫어하는 선수’였던 이유는 추신수의 놀라운 공격력 때문이었다.

윌리엄스 감독은 “우리한테 안타를 너무 많이 치고, 잘 쳤다. 선두타자로 나와서 밀어서 홈런 때려버리니까 경기를 재미없게 시작해야 했다”며 “우리에게 부담을 줄 선수가 한 명 더 늘었다”고 웃었다.

올 시즌 역시 KBO리그 데뷔를 앞둔 멩덴도 “상대해본 적이 있다. 좋은 선수로 기억한다”며 추신수와의 맞대결을 기대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